이색 체험, 가을 개산대재는 즐겁다

전국 사찰 개산대재 연이어 개최
봉은사 차향대전 · 토크콘서트
은해사 전국 어린이 미술대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8년 봉은사서 진행된 개산대재 정대불사 모습.

개산(開山). 사찰 창건의 역사를 기리는 축제의 한마당이 전국 사찰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가족문화행사, 문화재체험 등 독특한 행사들로 가득찬 개산대재가 진행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9월 29일 제1225주년 개산대재 다례재를 비롯해 봉은사 불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봉은사가 이번 개산대재를 기해 마련한 문화축제는 다양하다. 먼저 9월 29일 다례재에 이어 봉은사 경내에서는 그림그리기 대회, 가을음악회, 행복나눔바자회, 템플문화한마당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 가을음악회에는 한국의 재즈디바 웅산, 7080 포크송의 향수를 달래줄 '해바라기'와 '동물원', 발라드 가수 '김희진, 최지원', 세계적인 비파 명인 '노장청', 여성 3인조의 팝페라 '루나소울', 국악신동 '송수우', 봉은국악합주단 등이 출연하며, 불자 가수 김흥국 씨가 사회를 맡는다.

이와 함께 10월 1일에는 사찰음식체험 행사와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정대불사가 진행되며 법왕루에서는 혜민 스님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10월 2일 미륵광장에서는 다문화 가정,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전통혼례식도 진행된다.

이번 불교문화축제의 백미는 '봉은 차향 대전'으로 10월 3일 종루 및 미륵전 주변에서 열린다. 봉은 차향 대전에는 전국 다인 1000여 명이 모인다. 또 도올 초청 강연회도 법왕루서 진행된다. 이날 저녁에는 봉은연합합창제가 선보인다.

이밖에 다양한 문화전시전도 함께 진행된다.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회다원 앞에서 '무유의 차 항아리' 전시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보우당에서는 '옛기와 차와 선이 되다' 전시회,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미륵전 앞에서는 '사찰숲길 사진' 콘테스트, 10월 6일과 10월 7일에는 생전예수재 회향 한마당이 펼쳐진다.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개산 1210주년을 맞이해 10월 5일 부도전에서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를 연데 이어서 오전 11시부터 은해사 창건 의미를 새기는 개산법요식을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9월 21일 열린 '제1회 은해사 전국 어린이 · 청소년 미술대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개산법요식 이후에는 스님들의 증명으로 불자들이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보살계 수계식도 거행된다. 보살계 수계식 후에는 설운도, 박현빈, 한혜진 등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은해사 창건 1210주년 축하공연 '도 · 시민이 함께하는 새바람 행복 경북음악회'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는 창건 1374년을 맞아 10월 7일 개산대재를 연다. 이날 자장율사를 기리는 영고재와 법요식 등이 성대하게 열린다. 10월 20일까지는 사진 및 도자기 작품 특별전시, 경내를 가득 채운 국화로 꽃 공양을 올리는 국화장엄도 관람할 수 있다.

10월 5일과 6일에는 산문에서 괘불을 모시는 행사인 '영축삼보 이운'과 공양을 올리는 '괘불헌공'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밖에 **범어사**가 10월 2일 창건 1341주년 개산대재를 열며 **금산사**도 10월 중 창건 1420년 개산대재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국대 비구니 수행관 '혜광원' 문 열다

9월 9일 개원식… "아란야로 삼고 정진하길"

1994년부터 사용된 평창동 학사
2017년 재건립 추진, 2년만에 건립



동국대는 9월 9일 '비구니 수행원 혜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내외빈들이 참석한 혜광원 현판식 모습.

동국대 비구니 학인 스님들의 수행공간인 '혜광원'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중구 필동으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개원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9월 9일 '비구니 수행원 혜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前 이사장 자광 스님, 前 총장 보광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교육원장 직무대행 진광 스님, 재무부장 유승 스님,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1994년 조계종 총무원에서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각진선원을 인수한 후 동국대 종비생 비구니 학사로 무상임대하고 1995년 공식 개원한 혜광원은 이후 20여 년 동안 동국대 비구니 학인 스님들의 수행처로 활용됐다. 하지만 시설이 낙후됨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제18대 총장 보광 스님과 석림동문회장 성우 스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혜광원 재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본격적인 재건립 불사에 들어갔다.

2018년 기존 평창동 건물 대신 동국대 인근 건물을 매입해 이전키로 결정하고 중구 필동3가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올해 6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달 공사를 완료해 새로운 모습에 혜광원이 건립됐다. 혜광원 불사를 위해 전국 스님과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22억 원을 모연한 것도 의미가 컸다.

새로 건립된 혜광원은 최신식 시설로 거듭났다. 혜광원은 연면적 296.8평, 대지면적 122.5평 지하1층 · 지상3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하 1층(식당), 1~3층 사생실, 2층 법당 및 대중방으로 사용된다. 사생실은 1인실(3실) · 2인실(16실) · 3인실(2실) · 4인실(1실)로 구성된다. 기존 학사는 12명의 학인 스님만 수용이 가능했으나 새로 건립된 혜광원은 최대 65명까지 함께 정진할 수 있다.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은 혜광원이 청정한 수행처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이사장 법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새롭게 이전 · 개원한 혜광원은 통학거리도 짧고 주위 경치도 좋아 교육과 연구에 좋은 환경을 가졌다"면서 "이곳에서 수학하는 학인 스님들은 아란야(공한처)로 삼아 정진해 훌륭한 불종자를 세상에 심는 수행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탈종교화 시대에 맞아 불교를 세상에 바로 알릴 시대 안목을 가진 수행자들이 필요하다. 이곳에서 시대적 안목을 가진 수행자들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윤성이 총장은 식사를 통해 "보다 더 넓고 쾌적해진 여건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청정한 수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 중단 환영"

불교환경연대 16일 논평 발표… 종교환경회의도

환경부가 내린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 불교계 시민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9월 16일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경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원주지방환경청이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했다"면서 "양양군은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설악산의 가치를 살릴 때 양양군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갈라진 지역의 민심을 통합하고 진정한 지역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론의 모으기 바란다"고 양양군에 제언했다.

이와 함께 불교환경연대와 기독교 · 천주교 · 원불교 · 천도교 환경 단체가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도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종교환경회의는 9월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 정부에 의해 진행됐던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생태적인 결정을 내린 환경부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는 끊임없이 자연을 개발하기보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지키며 뭇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제16회 대원상 후보 공모… 10월 4일까지

출 · 재가 부문 나눠 대상 · 특별상 · 장려상 시상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16회 대원상(大圓賞)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은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아래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포교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매년 이어오던 대원상은 2018년부터 수상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격년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대원상 출가부문과 재가부문으로 구분해 시상한다.

상금 총액은 8000만원 이내이며, 올해부터는 부문별 상금을 대폭 상향해 대상 1000~2000만원, 특별상 500~1000만원, 장려상 300~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서류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2)719-2606

윤호섭 기자

백제문화제서 '부여수륙재' 옛 모습 재현

백제용선 수상무대서 4회 설행

1955년 백마강 수륙재가 제65회 백제문화제에서 새롭게 펼쳐진다.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9월 29일 백제문화제 개막과 함께 불교의식인 부여수륙대재를 레트로 감성으로 재현한 '다시보는 1955 부여수륙재'를 선보인다.

1950년대 흑백사진 상 당시 수륙재는 백마강에 수십여 척의 배가, 부소산과 백마강가에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장엄한 의식으로 펼쳐졌다. 이를 재현하기 위해 추진위는 백마강에 백제용선 디자인의 수상무대와 16개 읍 · 면을 상징하는 배와 주민, 조형물을 설치해 과거 수륙재의 전경을 투사했다.

또 추진위는 무주고혼을 천도시키는 내용을 담은 백마강 수륙재를 4회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사장과 주변에 수륙재에 대한 역사와 사진 등을 담은 전시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고, 소원등불 만들기 등 관람객 소원성취 프로그램, 휴대전화를 활용한 수륙재AR체험 등 체험 공간도 마련한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다시보는 1955 부여수륙재는 수륙재의 옛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색다른 콘텐츠"라며 "기성세대들에게는 아날로그적 향수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젊은 세대에게는 경험해보지 못 한 신선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법계문학상

제4회 법계문학상 공모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며 비구니 교육과 권익증진에 평생을 바친 '법계 명성스님'의 서원에 의해 제정된 '불교문학상'입니다. '법계문학상'은 역량있는 불교문학 신인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장편소설과 장편동화를 공모합니다.

공 모 분 야
공모분야 장편소설, 장편동화
공모주제 불교사상을 바탕으로한 자유로운 소재
공모분량 장편소설 200자 원고지 1,000매 내외 분량
장편동화 200자 원고지 500매 내외 분량

시 상 내 역
대상 1작품 상금 2,000만원 및 상패
※시상식 일정 및 장소 별도 공지

일정 및 방법
응모기간 2019. 10. 01 ~ 2019. 10. 25 까지
응모자격 신인 또는 등단 7년이내 작가
※자세한 응모 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http://blog.naver.com/batistaff
Tel 070-8880-8202 / E-mail batistaff@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703호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

공모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모한 작품은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제3회 법계문학상 수상작
이종숙 장편소설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소설로
조명한 최초의 작품『푸른 별의 노래』



푸른 별의 노래

백발이 성성한 龍城스님과 독립운동에 참여하다 한 팔을 잃어버린 壁星이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감격의 순간, 그건 法緣의 끈으로 두 사람을 다시 묶는 운명의 순간이기도 했다. 〈푸른 별의 노래〉는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